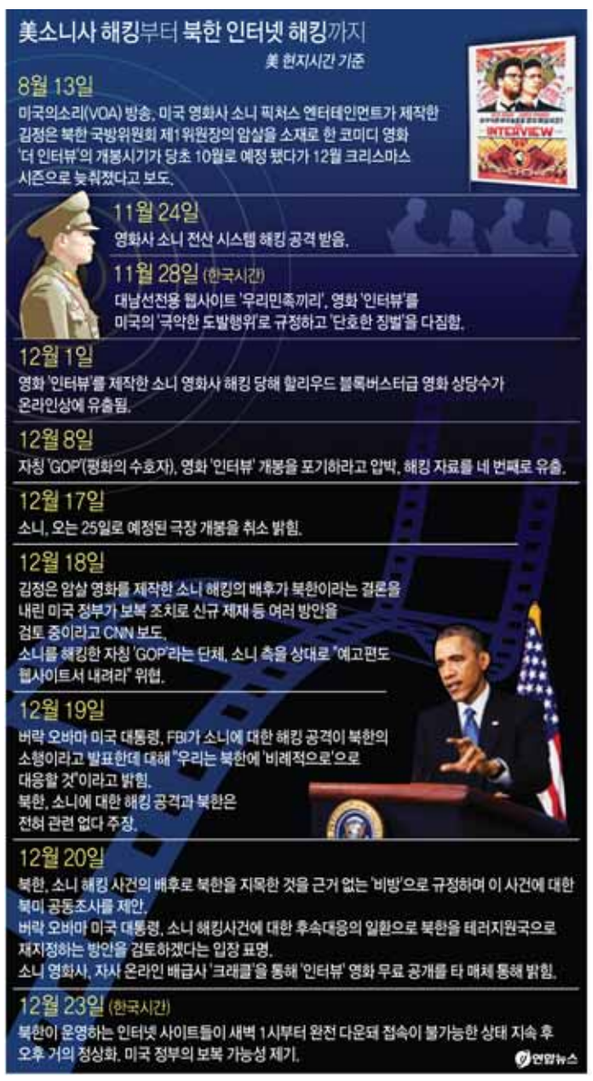
# 꽉 막힌 북한 인터넷

**이틀째 불통…미국 '사이버 보복' 나섰나**

## 국무부, 시인도 부인도 안해
## 테러지원국 재지정 않을 듯
## 내년초 대북 금융제재 강화 추진
## 영화 '인터뷰' 성탄절 200곳 상영



미국 정부가 소니 픽처스의 해킹·협박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비례적 대응'을 천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인터넷망이 이틀 연속 다운(불통상태) 됐다.

테러 위협으로 영화 '인터뷰'의 성탄절 개봉을 취소했던 소니 픽처스는 당초 결정을 번복하고 대형 극장체인이 아닌 독립극장 200곳 이상에서 제한적 상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북한 일부 사이트 이틀째 '불통'**=23일 오전 10시41분(GMT 기준 15시41분, 한국시간 24일 0시41분) 중국의 통신회사인 차이나유니콤이 제공하는 북한의 4개 인터넷망의 접속이 끊어졌다고 미국의 인터넷 리서치그룹인 딘 리서치가 밝혔다. 북한의 인터넷망 가운데 일부는 1시간여 만에 개통됐지만, 상당수 웹사이트에서 다운상태가 지속돼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전날에도 인터넷망이 완전히 멈췄으며 10시간여 만에 복원됐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3일(한국시간) 오후 다운된 이후 11시간여째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류경·려명'과 김일성방송대학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강당'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전날 다운됐던 웹사이트들은 이날 다운된 지 1시간여 만에 복구돼 현재 정상적으로 접속되고 있다.

◇**미 국무부 "확인해줄 것 없어" NCND 고수**=북한의 인터넷망이 이틀 연속 다운이 된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비례적 대응'에 따라 북한을 상대로 사이버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 인터넷 다운과 관련해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는 이른바 'NCND' 반응을 보였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인터넷망의 추가 장애 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북한 인터넷망) 불통 원인을 추측할 수 없으며, 불통됐다는 보도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터넷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왜 그런지는 북한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했을 가능성과 중국이 북한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을 가능성, 해커나 해킹집단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 **극장 200여곳 성탄절에 '인터뷰' 상영키로**=소니 픽처스는 성명에서 "영화 '인터뷰'가 성탄절인 25일 극장 200곳 이상에서 상영될 예정"이라며 "이는 미국 독립극장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에 있는 알라모 드래프트하우스 극장과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는 더 플라자는 트위터를 통해 성탄절에 영화 '인터뷰'를 상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린턴 소니 픽처스 공동 사장은 "우리는 영화 상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극장과 플랫폼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관객이 이 영화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니 픽처스가 개봉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국내외적으로 비판 여론이 대두한 데 따른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소니 픽처스의 개봉 취소에 대해 "실수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 **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않을 듯**=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프 부대변인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상징적 효과에 그치고 실질적 제재 효과는 크게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무기수출과 판매 금지, 이중용도품목 수출 통제, 해외원조 금지, 금융지원 차단 등의 제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무부는 내년 1월 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기에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북 금융제재를 본격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 뻥 뚫린 미국 공항

**여객기 총기 불법 적재 업자·도움 준 항공사 직원 검거**

여객기에 총기를 불법으로 적재한 총기밀매업자와 이를 도운 항공사 직원이 미국 경찰의 수사로 적발돼 다시 한 번 미국 공항의 허술한 보안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 경찰과 뉴욕 브루클린 지방검찰,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공조 수사로 여객기에 총을 불법으로 실은 총기밀매업자 마크 헨리와 그를 도운 델타항공 직원 유진 하비를 검거했다.

헨리는 지난 10일 델타항공의 본거지인 조지아 주 애틀랜타 공항에서 총기 18정을 가방에 싣고 뉴욕 JFK 공항에 내린 뒤 이를 운반하려다가 위장 수사 요원에게 덜미를 잡혀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총기 18정 중 7정은 이미 총알이 장전된 상태였다고 수사 당국은 밝혔다.

헨리는 올해 5월 1일부터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애틀랜타와 뉴욕을 5차례 오가며 자동 소총 2정과 AK 47 소총 등을 포함해 총 129정을 여객기에 불법으로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델타항공 수하물 처리 직원인 하비가 큰 도움을 줬다.

하비는 항공사 직원으로서 미국 교통안전국의 보안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공항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특수 신분을 활용해 헨리를 대신해 총기를 공항 안으로 불법으로 반입했다.

미국 공항의 허술한 보안이 문제로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15세 소년이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국제공항에서 하와이로 가는 여객기의 바퀴 격납 공간에 숨어 5시간 동안 비행한 사실이 드러나 소년의 활주로 침입을 인지하지 못한 공항과 TSA에 비난이 쇄도했다.

또 9월 이후 미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우려가 번질 당시 서아프리카에서 오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검역에서도 허점을 드러내 공포 확산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형 산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 관광객들이 발광체의 대형 산타클로스 상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日 제3차 아베 내각 발족

**아베노믹스 궤도 복귀·집단자위권 법제화 당면과제**

일본 제3차 아베 내각이 24일 발족했다.

국회 해산에 이어 치러진 지난 14일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압승을 이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소집된 특별국회에서 제97대 총리로 선출됐다.

2006년 9월~2007년 8월 제1차 아베 내각과 2012년 12월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제2차 아베 내각을 이끈 아베 총리는 이번에 3번째로 내각의 수반에 올랐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전후(戰後) 일본에서 '3차 내각' 고지를 밟은 7번째 총리가 됐다. 총리로서의 연속 재임 기간으로 따지면 오는 26일 만 2년을 맞는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2001년 4월~2006년 9월 사이 5년5개월 재임) 이후 처음 5년 이상의 장기 집권을 노리게 됐다.

3차 아베 내각은 간판을 바꿔 달 뿐 구성원은 거의 그대로다.

최근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한 에토 아키노리 방위상을 제외한 기존 아베 내각 각료들은 24일 오전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나서 오후 재임명됐다.

지난 10월 정치자금 기재 누락 문제가 불거졌던 에토 방위상이 물러나게 됨에 따라 신임 방위상에는 고이즈미 정권 때 방위청 장관을 역임한 나카타니 겐(57·中谷元) 중의원이 됐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또 새 중의원 의장으로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전 외무상이 이날 선임됐다.

3차 아베 내각은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동원, 성장전략으로 구성된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본궤도에 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엔저와 주가 상승을 유도하며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를 높였지만 지난 4월 소비세율 인상(5→8%) 이후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위기를 맞았다.

새 내각은 이와 함께 내년 1월 말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법률 정비를 진행하고 원전 재가동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3차 내각의 운영 구상을 밝혔다. /연합뉴스